



보도시점 2024. 9. 26.(목) 16:00 배포 2024. 9. 26.(목) 10:00

국조실-외교부 합동 2030 청년 대상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

- 우리정부 개발협력 현황 및 방향성 소개
- 개발협력 관련 청년 세대의 효과적인 정책제언 관련 조언

국무조정실과 외교부는 9월 26일(목)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전 부처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“2030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”를 진행했다.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ODA(공적개발원조)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본 행사는 국무조정실-외교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과제의 일환으로,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간담회에는 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,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, 전 부처 2030 자문단,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청년 인턴들이 참석하였으며,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, ODA에 대한 청년층 및 대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고,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특히 2030 자문단의 참여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외교부 청년보좌역이자 외교부 2030자문단장 이시라 보좌역은 “청년 세대가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이렇게 청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하였다.

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은 “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, 2030 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개발협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목표다.”고 말했다.

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은 “이번 간담회를 계기로, 향후 다양한 경로로 청년들이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,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전했다.

또한,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각 부처가 부서의 경계를 넘어 청년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,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 이를 통해 양 부처는 협업과 청년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	책임자	과장	전창현 (044-200-2074)
		담당자	사무관	장이나 (044-200-2076)
담당 부서	외교부 개발협력국	책임자	과장	윤정주 (02-2100-6971)
		담당자	행정관	장소민 (02-2100-6975)
<공동>	외교부 청년·지방민생외교팀	책임자	팀장	이우철 (02-2100-8402)
		담당자	청년보좌역	이시라 (02-2100-8358)